제2강 교수의 자기고백 Ⅱ : 내가 생각하는 시

(1교시)

내가 생각하는 시, 내가 써온 시

- 한용국 시인과의 대화

고운기 시인을 만나기로 한 곳은 신촌이었다. 아담하고 정갈해 보이는 독일식 맥주집에 소탈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83년 등단해 시력 20년이 넘은 시인, 연세대 국학연구원 교수, 삼국유사 연구의 권위자. 불교방송(BBS-FM)의 아침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그의 이력은 다양했지만, 맥주잔을 들고 마주앉은 시인은 단정하고 소탈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사십대 중반의 남자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오며 대담자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줄 아는 남자였다. 나는 고운기 시인의 시집을 읽고, 또 그의 이력을 조사하고, 그를 만나러 오는 동안, 나름대로 시인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정확하게 일치했다. 무엇보다 삼국유사를 연구하는 사람 아닌가. 아직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편견이겠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 중,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모두 따듯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맥주와 함께 한 두 마디 운을 떼며 시작한 인터뷰는 사소한 일상에서 시대적 영역까지, 그리고 개인적 상처에서 실존까지 넘나들었고, 그것은 마치 열차를 타고 유사 속을 여행하는 과거의 여행자가 된 느낌이 들게 했다. 가끔 옆자리에 월명사가 나타나 피리를 불어주기도 했었던가, 어느 창 밖에서는 두 개의 해가 뜨기도 했었던 것인가.

한용국 : 선생님께서는 시인으로서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보통 시를 쓰는 학자라고 하면 현대문학을 연상하게 되는데, 고전문학을 연구하셨거든요. 그 동기라든가 또 시작에 미친 영향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고운기 : 시 쓰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특히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고전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사실은 현대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니까 많이 분산되더군요. 시에다가 전념을 못하는 거죠, 잘 모르는 분들은 대학원 공부를 했다고 하면 현대문학전공인줄 알아요. 시 쓰는 걸로 먼저 알려졌으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오기도 있었죠. 시 쓰는 사람이 이론공부까지 하게 되면 안 된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써야지. 근데 오기였던 거 같아요. 이론 공부하면서 함몰될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학부 일학년 때 춘천에서 이승훈 선생이 한양대로 오셨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승훈 선생님 시를 읽으면서 생각하면, 수업시간에 자기 이론을 그대로 시로 가져다 놓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십년 지나고 이승훈 선생님의 궤적을 보면, 그 집중이 더 나았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공부한다고 시에 전력투구 할 수는 없었고. 간간이 쓰면서 발표한 정도였으니까요. 얼마전에 누가 생활에 근거한 시 어쩌고 하는 평을 썼는데, 사실은 그런 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것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밖에 쓸게 없거든요,(웃음) 사실 실험적으로 새로운 것을 써보고, 발표하고 그런 적도 없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결국 삼국유사로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고전적인 지식을 습득했으니까 그것을 원용해서 현대화된 시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국유사는 설화적 신화적 상상력이니까요. 하지만 제게 삼국유사는 시를 쓰기 위한 상상력 훈련이 될 수 없었지요. 삼국유사를 연구하는 것은 그것대로 다른 메커니즘 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영향을 받기는 했겠지만, 삼국유사 연구에 있어서는 시가 주가 될 수가 없었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요즘 와서 후회스럽다는 느낌은 있어요. 나와 같이 등단했던 사람들이 기형도를 비롯해서, 안도현, 정일근, 이승하 등의 시인들은 어쨌든 시에다 전력투구를 했으니까요. 특히 안도현 같은 경우는. 이십년을 전력투구했는데 못쓰면 바보지(웃음, 하하), 재주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썼으니까, 그런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하지만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한용국 : 그리고 또, 선생님의 시는 일상이 시적으로 잘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자칫하면 이런 시는 비시의 영역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선생님의 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요(웃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선생님의 시에 대한 생각이랄지, 시론이랄지 하는 것이 있다면.

고운기 : 전 사진을 참 좋아해요. 그렇다고 사진을 잘 찍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김수남이라는 사진작가 때문이에요. 한국의 굿이라는 사진을 찍은 분인데, 그분을 구십년대 초반부터 알게 되어서 그분의 사진 작업을 따라다니며 많이 보게 되었지요. 그분이 굿판에서 무당들의 춤사위를 찍은 걸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이 찍은 것과는 달라요. 어떤 디자이너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찍은 굿 사진과 이 사람이 찍은 굿 사진은 정말 다르다. 김수남씨는 춤사위가 어떻게 돌아오는 지, 어떻게 돌아갈지 알고 찍는다. 가장 절정의 부분을 알고 찍는다.” 물론 그것은 김수남씨의 오랜 시간의 연구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그이가 찍었던 유명한 무용가들의 춤도 있는데, 몇 시간의 춤판인데 다만 그 중의 몇 장면만이 그 사람의 책 속에 실려 있거든요. 하지만 그 몇 장면만 봐도, 아 이 굿이, 이 춤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요. 아마 시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장의 스틸 사진 같은 것이지요. 어느 한 장면을 잘라서 찍으면 그 앞뒤가 보이는 그런 스틸사진 말이에요. 우리 삶은 일상들로 이루어지고, 그 일상에는 의미 있는 단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해요. 소설과 시는 이 지점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소설은 흐름을 끌어가 주는 장르지만, 시는 그 흐름을 잘라서 그 단면을 보여주는 장르랄까요. 그러니까 잘 못 쓴 시들은 소설처럼 쓰는 시들이고, 잘못 쓰는 소설은 시처럼 쓰는 소설들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나무의 성장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시라는 것은 어느 한 단면을 잘랐을 때, 그 사람의, 혹은 삶의 전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일상을 잘라내서 내놓았을 때, 아, 이 사람이 이 시를 쓸 때의 분위기가 어떤 것이었을까, 그 앞뒤의 상황과 정서를 전달 할 수 있으면 그게 전부인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시를 쓰고 나면 생각하죠, 과연 내가 잘 잘라냈을까. 그런데 일상에 집중하는 시를 쓰는 데는 부담이 있어요. 일상에 자기 주변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그게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요. 굳이 그걸 꼭 써야 되나? 하고 말이지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한용국 : 그런데 선생님의 시에는 그런 성찰과 아울러서 슬픔을 지탱해 주는 위트라고 할 만한 것이 불쑥불쑥 나타나서, 은근히 미소를 짓게 만들어요. 그 위트는 시 속에서 시를 꽉 붙잡아 주기도 하고, 시집 전체에 드러나는 비애 같은 것을 잘 견디게 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는 누님께 시집을 빌려드렸더니, 도통 시를 안 읽으시는 분인데 하루 만에 다 읽으셨더군요. 누님의 말씀이 정말 진솔한 시집을 읽었다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전 언제나 시집을 오독하지만요.(웃음)

고운기 : 일연은 삼국유사를 썼는데, 일연이 살았던 시대 13세기는, 아마 지금 이십 세기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 역사에서 13세기만큼 어려웠던 시대가 없어요. 무인정권, 몽고전쟁 몽고의 간섭기가 죽 이어졌지요. 일연이 120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이 탄생 팔백주년인데요. 일연의 삶은 태어나던 해부터 시작해서 백년간이 온전히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 있었지요. 그 백 년 동안, 아마 2000년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백년은 13세기 백년과 20세기의 백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연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평화 속에서 살지 못한 사람이지요. 그런 시대를 살아왔으니 승려가 아닌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비극적 세계관이 훨씬 강했으리라는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늘 삼국유사를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곤 해요. 황룡사에 사는 정수라는 스님이 한겨울 천암사라는 절 앞에서 한 거지 여자가 애를 낳고 얼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안아서 체온으로 녹이고, 살아나니까 입고 있던 옷 다 벗어주고, 맨몸으로 황룡사까지 뛰어 가서, 옷이 없으니 거적대기를 덮고 밤을 새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이 점잖은 스님이 옷 다 벗어주고 스트리킹으로 뛰었다는 거거든요. 옷을 다 벗어주고 천암사에서 황룡사까지 뛰었다는 얘긴데, 황룡사는 경주 한 복판이고, 게다가 인구가 십만이던 번화한 도시예요. 일연은 그걸 그냥 맨 몸으로 뛰었다, 그리고 거적데기를 뒤집어쓰고 밤을 새웠다고 간략하게 서술했지만, 그걸 쓰면서 '아 이 친구 발가벗고 뛰었군' 생각하며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졌을 거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일연은 국사도 되고 하니까 나름대로 권력을 누렸다고도 하겠지만 그런 시절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괴로운 거예요. 단 한 편도 마음 편하게 살아 봤을 리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조신의 꿈을 쓰는 대목을 보면, 조신이 꿈속에서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가 헤어지자고 먼저 얘기를 꺼내지요. 그때 이 대목이 재밌어요. 그 때 '조신이 너무 기뻐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정신들을 삼국유사에서 배웠던 거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시에 녹아든 게 아닌가 생각하죠. 한 마디 더 하자면, 선배문인들 중에서도 마음에 존경스러웠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젊었을 때, 자유실천문인협회가 부활되었어요. 험한 시절이었잖아요. 누가 잡혀갔다고 농성하러 가고 등등…. 시절도 시절이었고 모두들 암울했어요. 그런 농성장에서도 그 분위기를 바꿔 준 분들이 있었어요. 김정환 시인이나 채광석 평론가 등등, 그 칙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한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힘을 주었던 분들이죠. 그런데 나는 그게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어렵던 시절을 버티게 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나중에 화가 나는 건 그런 분들은 다 뒤에 가 있고, 나서서 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폼만 잡던 사람들이라는 거지만요. 생각해 보 면, 문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모두들 어려울 때, 힘내게 해주는 광대 같은 사람들 말이지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2교시)

伏流 외

건물 입구에 爲堂 선생 흉상
바로 뒤 햇볕 잘 드는 계단에서
선생의 뒤통수를 보며 담배를 태우게 되는 것인데

좀 멋쩍지요
참람키도 하고

뒤통수 하나 참 잘 생겼네, 그랴…

그래서 가끔은 앞으로 나아가 정면에서 얼굴도 보는 것인데
어떤 때는 아침에
어떤 때는 늦은 오후에
햇볕도 참람하게 선생의 안경테에 걸터앉아
제멋대로 그림자를 옮겨가고 있는 것인데

선생도 햇볕에 따라 조금씩 자세를 고쳐 앉는 듯 했지요

다산이 그렇고 성호가 그렇고 그리고 하곡 원교 초원 담헌 석천 등이 역시 모두 그러해서
수삼 세기 동안 지하를 복류해야만 했던 선학들의 슬픈 사연을 몸으로 감당하시고 지표로
광복하신 이가 바로 선생 당신이시다

흉상 아래 誌石이
알 듯 말 듯 연호하는 이름들은
곤륜산 흘러내린 물이 되어 수 천리를 땅속으로 흐르다
흙먼지 툴툴 털고 나와 광복한 사연 전해들은 것인데

전쟁 통에 끌려가 소식을 모른다는 이 대가는
그렇게 또 복류의 세월 속으로 들어간 듯 했지요.

귀신고래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영일 앞 바닷가 마을에 연오 세오 부부가 살았지. 연오가 바다에 나갔다가 웬 넓적한 돌 위에 올랐더니 바위가 일본 땅으로 싣고 가더라나.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세오가 바닷가를 헤매는데, 다시 바위가 나타나 그마저 일본으로 데려 갔더라네.

둘이 일본 가서 왕이 되고 왕비가 되었지만, 그 때문에 신라 땅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점쟁이 왈 연오 세오가 보통 것들이 아니어서, 해와 달의 혼을 빼갔다고, 그것들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했더라네.

신라 땅에 무슨 불만이 있어 하필 가져가기를 햇빛과 달빛이었을까. 금덩이야 캐면 또 나오고 집이야 만들면 고대광실 되건마는, 빛 잃으면 길을 잃고, 사람들 제각각 제길 찾아 헤매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갈 곳 몰라 할 것인데, 하필 신라 땅 우리 조상들한테 그런 일이 생겼더란 말일까.

미욱히 생각하니, 영일 앞 바다에 고래가 있어, 어떻게 날래고 머리 좋은지 귀신고래라 부른다는데, 사람들이 바위라 보았던 그것이 실은 덩치가 바위 덩어리 같은 바로 그 귀신고래가 아니었는지 몰라.

이제는 오오츠크 차디 찬 바다에 나가 산다 하지.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햇빛과 달빛은 뭐야. 정말 빛인 게야?

金山寺

-哀詞②

단풍잎이 당신 머리 위로 내려앉았지요

카메라로 나를 찍는다고
나는 그렇지 않아도 수줍은데 당신은
계면쩍어 일그러진 나를 담아 갔지요

미륵전 부처님이나 아실라나요

단풍잎이 당신 머리 위에서 내게 건너와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다시 당신을 바라보기 쑥스러워
쿵쿵거리는 가슴 속이자고 미륵전 부처님한테
두 손 모았음을…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나를 담아간
세월이었지요, 하늘과 푸른 바람과 억새풀과.

단풍나무 그늘을 지나다

-哀詞③

금산사 톨게이트를 빠져 나와
흔적만 남은 일번국도를 지날 때였다

길들은 자주 外道를 했다

소박맞은 가로수들이 하염없이 나이를 먹어 가고
허리만 굵어질 뿐 잔가지는 잘려나가고 없었다

노란 잎이 그나마 몇 낱 달린
우리가 스치는 바람에 살짝 미소 짓는
바로 그 순간에 가을이 와 있었는데

단풍나무 그늘을 지나와
버림받은 길 위에서 그늘을 품에 담고
그늘을 닮아버린 사람이 있다

왜 거기쯤이 자기가 멈출 곳이라 마음먹은 걸까

길 위의 어느 지점에 제 마음을 걸어놓는
쓸쓸한 여행을 나는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